공동체 소식

그리스도 왕 대축일

하느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에서 저희를 구해 내시어, 정의와 사랑으로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게 하시니, 저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아드님의 발자취를 따라, 저희도 형제들을 위하여 저희 삶을 내어 놓고, 하늘 나라에서 아드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11월 기도지향

- 김정원(베드로), 김말자(세실리아) 가정
- 김도영, 박희영(카타리나) 가정

☞ 12월 기도지향 : 김호원(요한), 박정자(수산나) 가정 / 정준구(파비아노), 박혜정(카타리나) 가정

▣ 위령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연관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 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캔사스 대주교님 사목방문

오늘(11/24) 중심미사 때, Joseph F. Naumann 대주교님께서 미사 집전을 해 주시고, 점심 식사와 더불어 사목 보고를 받으십니다. 대주교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공동체 준비 사항

- 평협 / 재정분과 / 교육분과 보고(서면 작성)
- 전례분과 : 꽃다발 및 선물 준비
- 행사분과 : 체육관 셋팅 및 엠프 설치
- 구역분과 : 안내 및 음식 준비

☞ 공동체 협조 사항 : 미사 시간 엄수(적어도 10분 전), 개인 강복 혹은 사진 촬영 금지

▣ 구역별 판공성사

- 12/5(목) : 2구역, 김호원 요한 형제님 댁
- 12/6(금) : 1구역, 박옥희 헬레나 자매님 댁
- 12/13(금) : 3/5구역, 양경직 돈보스코 형제님 댁
- 12/19(목) : 4구역, 박희영 카타리나 자매님 댁

☞ 오후 7시까지 해당 가정에 모여 고해성사가 진행되는 동안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대림시기이므로 조촐한 다과 후,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 기타

- 다음 주(12/1)부터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시기'가 시작됩니다.
- '매일미사' 책 신청 받습니다. 배송료 포함, 1년 구독료 60불입니다.
- 주보 편집장으로 김원철 바실리오 형제가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박동희 안나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마 침
78	340	180/164	77

▣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종 복사
금주	- 십자가 : 전종준(루치오) - 향 : 안광민(야고보), 정병훈(보니파시오)	
차주	정병훈(보니파시오)	김태중(예레미아)
	안지영(카타리나)	문예나(요 안 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세실리아)	조장군(바 오 로)
		우숙정(아나스타시아)
차주	박혜정(카타리나)	정수한(베 드 로)
		김주연(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주	사목 방문
차주	최선윤, 신혜경, 정선식, 서정애, 김수연

▣ 헌금 봉사자

금주	문석찬(요셉), 최은미(아네스)
차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드로)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1/03	102명	374불	900불

유길수, 이현주, 정수한, 문석찬,
김원철, 주영길(총 6세대)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M: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M: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전례력으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축일명대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임금)이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백성을 억누르는 임금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는 메시아의 모습을 실현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높아지신 것입니다.

성화해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당신 오른편에 앉히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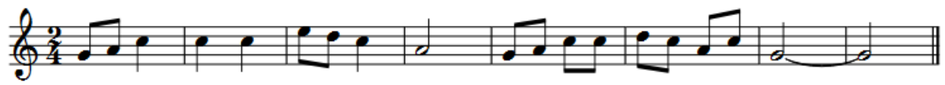
(피에테르 데 그레베레, 1645년, 캔버스에 유채, 위트레흐트 국립박물관, 네덜란드)

예수님께서는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 내시며 우리 앞에 새로운 생명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원천인 십자가에서 생명의 백성이 태어나고 성장하여 생명을 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생명의 복음」 51항 참조) 이를 통해 인간은 하느님의 생명을 향하여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 서 : 2사무 5,1-3 <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

화 답 송 :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제,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은 이미 서 있노라. ◎

○ 지파들이 주님의 지파들이 저기 올라가도다. 이스라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러.
저기에는 재판하는 자리가 있고, 다윗 가문 옥좌가 놓여 있도다. ◎

제 2 독 서 : 콜로 1,12-20 <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 음 : 루카 23,35ㄴ-43 <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

쉐 마

“봉사와 사랑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오래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20대 청년들이 범죄 집단을 결성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더 많은 사람을 해치지 못한 것이 한(恨)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악마의 탈을 쓴 인간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당시 법에 따라 그들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명은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생 동안 참회의 생활을 했고 마지막엔 장기기증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한 기자가 사형 집행에 입회했던 선교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참회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철저히 하느님의 몫입니다. 이 땅에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자신의 죄를 달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느님께 맡겨야 하겠지요.”

하느님의 도우심, 즉 은총 없이는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하느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한 죄수는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삶의 불만을 무고한 예수님께 퍼붓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드라마틱한 장면에서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직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 안에서 주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직은 권력을 부리고 힘을 쓰는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사랑의 왕, 봉사의 왕, 진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는 누구나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봉사하는 왕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권력, 명예, 욕심… 이러한 것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통치자이며 인도자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서 섬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봉사와 사랑을 평생 동안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의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루카 23,42)

- 서울대교구 허영엽 마티아 신부 -

마중물

누구일까요?

1)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한 적이 있으며 점성술로 결정을 내리고, 두 명의 부인이 있으며 매일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9~10병의 마티니를 마신다.

2) 회사에서 두 번 쫓겨난 적이 있으며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 때 마약을 복용했고, 매일 한 번씩 위스키 4분의 1병을 마신다.

3) 전쟁 영웅으로 채식만 하고 담배도 안 피고 필요할 때만 맥주를 조금 마실 뿐이다.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죽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애인만 사귀었습니다.

이 세 명의 정치인 중에서 한 명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어떤 정치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3번이겠지요. 1번과 2번을 뽑기란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번이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2번은 영국의 처칠 수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올바른 모습을 보였던 3번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옛 어른들이 항상 힘주어 말씀하셨지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던 자캐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를 타락한 죄인의 본보기로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보여준 겸손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결국 모든 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신앙의해’교육자료

제 7절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63.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며 마지막 시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은 오직 하느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비록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우리가 알 수 없지만(사도 1,7) 승천 이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임박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역사의 어느 순간에든 이루어질 수 있지만, “믿지 않는”(로마 11,20)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할 때 까지 보류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73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는 많은 신자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게 될 마지막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상 순례에 따르는 이 박해는, 진리를 저버리는 대가로 인간의 문제를 외견상 해결해 주는 종교적 사기의 형태로 ‘죄악의 신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종교적 사기는 거짓 그리스도, 곧 가짜 메시아의 사기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하느님과 육신을 지니고 오신 하느님의 메시아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